

보도시점 2026. 6. 17.(수) 15:00
엠바고

배포 2026. 6. 17.(수)

농촌진흥청·통일부, 「제2차 한반도 농업포럼」 공동 개최

- 남북 농업협력 사례 분석을 통한 새로운 협력 방향 모색 -

【관련 국정과제】 (통일부)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통일부(장관 정동영)와 6월 17일(수) 오후 2시, 남북회담본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정부, 학계 및 농업 분야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제2차 한반도 농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한반도 농업포럼」에 이어 ‘사례를 통해서 본 남북 농업협력의 과제와 시사점’을 주제로 과거 남북 농업 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초국경 기후 위기와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농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경 농촌진흥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며, “과거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준비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 농업 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 그리고 공동 성장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상생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며, “미래 지향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국제사회와 협력 속에서도 추진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개회식에 이어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주제 발표는 △민간 차원의 남북 농업협력 경험과 과제(이태현 통일농수산사업단 대표) △북한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형성과 운영 한계 분석(성경일 강원대 교수) △북한의 농업기술 개발 동향을 고려한 남북협력 방향 제안(김황용 농촌진흥청 부장) 주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부 종합 토론에서는 최윤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발제자 및 참석자들과 함께 남북 농업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촌진흥청과 통일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남북 농업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제2차 한반도 농업포럼」 세부 일정

2. 포럼 사진(별도 첨부)

담당 부서 <총괄>	통일부 평화교류실 기후환경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민경 (02-2100-5481)
		담당자	사무관	이상호 (02-2100-5485)
담당 부서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민경 (063-238-1110)
		담당자	연구관	박원서 (063-238-1111)
				



붙임 1

「제2차 한반도 농업포럼」 세부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13:30~14:00	사전등록	
14:00~14:05	개회 및 내빈 소개	사회자
14:05~14:10	개회사	김상경 차장 농촌진흥청
14:10~14:15	환영사	김남중 차관 통일부
14:15~14:30	참석자 기념촬영	
< 제1부 : 주제 발표 >		
14:30~14:50	발표 1 민간차원의 남북농업협력 경험과 과제	이태헌 상임대표 통일농수산사업단
14:50~15:10	발표 2 북한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형성과 운영 한계 분석	성경일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15:10~15:30	발표 3 북한의 농업기술 개발 동향을 고려한 남북협력 방향 제안	김황용 부장 농촌진흥청
15:30~15:40	휴 식	
< 제2부 : 종합 토론 >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5:40~16:30	이주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좌 장>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6:30~	마무리 및 폐회	사회자